

다시 시작되는 풍경, 새해의 첫 장 여는 두 개의 시선

리아트센터 2026년 첫 기획전...오는 31일까지

매일의 무등산 풍경 담은 조근호 '몽치산수'부터 '멈춘 시간 탐구' 벨기에 작가팀 결과발표전까지

새해의 첫 전시는 늘 한 해의 태도를 드러낸다. 리아트센터가 2026년 신년 기획전으로 꺼내는 질문은 거창하지 않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 아침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리아트센터의 올해 첫 기획전은 공간 전체를 두 개의 장면으로 나눴다. 1층은 회화, 2층은 설치 작업으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매체와 감각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시간'과 '잠시 멈춰선 시간'을 보여준다.

1층에는 '몽치산수' 연작으로 잘 알려진 조근호 작가의 개인전 'Good Morning, New Mornin'g'이 마련됐다.

조근호의 회화는 작업실 창밖으로 바라본 무등산의 풍경에서 출발한다. 같은 산을 바라보지만,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화면에

담기는 인상은 달라진다. 일출과 일몰, 빛의 변화와 하루의 흐름이 화면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작가는 매일의 시간을 기록하듯 화면을 완성해 나간다. 특정한 순간을 포착하기보다, 반복되는 관찰과 축적을 통해 풍경을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낸다. '몽치산수'라는 명칭처럼, 조근호의 회화는 흘러진 시간의 조각들을 모아 풍경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렇게 만들어진 화면은 특정한 하루의 기록이라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의 안부 인사처럼 조용히 관람객을 맞는다.

2층 전시는 벨기에 작가팀 보리스 담블리와 소피 덴블뢰가 함께 선보이는 프로젝트 'The Hanged Man'이다. 이 전시는 지난해 광주 예술의 거리 빈집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두 작가의 작업을 확장한 결과 발표 성격의 전시다.

타로 카드 '매달린 사람'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무너지는 세계와 아직 오지 않은 세계 사이의 '멈춘 시간'을 탐구한다. 외국인 작가로서 경험한 '사이에 있는 상태'는 시선을 뒤집고, 익숙한



조근호작 '일출'(사진 위쪽)과 '일몰'

질서를 낯설게 만든다.

천으로 만들어진 조각들은 사라진 것들을 호출하듯 공간에 걸린다. 이는 광주가 지닌 섬유 산업의 역사와도 겹쳐 읽히며, 장소성과 작업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말없이 매달린 형상들은 시위를 연상시킨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보리스 담블리, 소피 덴블뢰작 'The Hanged Man'

변화의 틈에서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묻는 몸짓으로 기능한다.

지난 3일 오후 5시 리아트센터에서 열린 전시 오프닝에서는 조근호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과 보리스·소피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조근호의 라이브 드로잉은 하루의 기록이 화면으로 응축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고, 이어진 퍼포먼스는 '멈춤'과 '전환'이라는 전시

의 핵심 키워드를 몸의 움직임으로 드러내며 현장의 몰입도를 높였다.

전시와 연계한 아트토크도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근호 작가가 참여해 전시 'Good Morning, New Morning'과 '몽치산수' 연작을 중심으로 작업의 흐름과 시간에 대한 사유를 관객과 나눌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이정기·서영기·양나희·임수범·하승완 작가

'2026 ACC 뉴스트' 선정

복합전시7관서 릴레이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최근 '2026 ACC 뉴스트(Newst, New+Artist)'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오는 3월 새로 개관하는 ACC 복합전시7관에서 전시할 뉴스트 작가는 이정기, 서영기, 양나희, 임수범·하승완이다.

ACC는 지난해 11월 지역 작가의 창작과 전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6 ACC 뉴스트'를 통해 참여작가를 공모했다.

'ACC 뉴스트'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창작의 주체가 돼 작품과 전시를 선보이되, ACC가 함께 참여해 공공성과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협업형 전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회화 등 평면 작업을 중심으로 작가의 개별 작업을 밀도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57개 팀이 지원했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시각예술 분야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1·2차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4개 팀(5인)의 뉴스트 작가에게는 작품 제작과 전시를 위한 창작 지원비가 지급되며, ACC는 내부 인력을 작가와 1대1로 매칭해 전시 기획, 공간 구성, 전시 운영 등을 함께 협의하며 전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평론과 전시 홍보를 위한 전문가와의 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ACC는 기존 복합전시1·6관의 뉴스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복합전시7관을 새롭게 조성해 왔다.

오는 3월 문을 여는 복합전시7관은 약



왼쪽부터 이정기, 서영기, 양나희, 임수범, 하승완.

132㎡ 규모로 조성된다. 향운·합습, 조명 등 작품의 보존과 전시 환경을 고려한 시설을 갖췄다.

ACC는 이곳에서 지역 작가의 창작과 전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 ACC 뉴스트' 작가 전시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복합전시7관 개관과 함께 첫 번째 전시로 이정기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유물의 그림자(가제)'를 주제로 가상의 유물에 허구적 사실성을 결합해 현재의 사물과 장면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 미래의 시점으로 해석되고, 현재를 미래의 시점으로 다시 보게 하는 전시가 펼쳐질 예정

이다.

이어 4월 중순에는 임수범·하승완 2인 전, 6월 '종이부조 회화' 작업을 선보이는 양나희 작가 전시, 7월 중순 삶 속 사라지지 않은 흔적을 다루는 서영기 작가 전시가 차례로 관객들과 만난다.

김상욱 전담장은 "'ACC 뉴스트'는 ACC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창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ACC가 전시 기획과 운영 전반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ACC를 발판으로 보다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경계를 지우는 안개'

광주시립미술관, 오는 15일 김주연 작가와의 대화

광주시립미술관은 기획전 '장미 토끼 소금' 살아 있는 제의'와 연계한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김주연 작가와의 대화: 경계를 지우는 안개'를 마련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에 참여한 김주연(사진) 작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작업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작가는 상실과 상처의 결을 따라 존재의 지속성과 희망을 탐색해 온 작업을 통해 일상 속 쉽게 지나쳐온 회복의 가능성을 꾸준히 질문해 왔다.

자연과 살아 있는 식물성 재료, 소금 등을 매개로 한 실험적 조형은 생명성과 치유의 감각, 삶의 경험이 어떻게 몸에 새겨지는지를 주요한 주제로 삼는다.

김주연은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순수조형예술대학에서 마이스터술러 학위를 취득했다. 불교 철학의 개념인 '이속(異熟·모든 존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유)'을 바탕으로 작업을 전개해 왔다.

대담은 전시를 기획한 홍윤리 학예연구사가 맡는다. 참가 신청 및 문의 062-613-7107.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